

산상수훈과 한국적 재구현

-개신교 가사 『연경좌담』(1923) 중 “산상보훈가” 연구-

양재훈*

1. 들어가는 말

올 해는 우리나라가 일본제국주의의 억압에 평화적으로 항거한 3.1 만세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이다. 비록 나라는 빼앗겼지만 우리 선조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다시 주권을 되찾으려고 몸부림쳤으며, 일제강점기의 암흑 시절 가운데 기독교 또한 우리 민족의 숨결이 담긴 등불을 지켜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 기독교는 독립과 한국전쟁 이후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도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성서학은 한국적인 색채와 목소리를 간직하면서 한국 교회와 사회 가운데 한국적 기독교를 만들어 가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역할과 기여를 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성서학은 이미 세계적 위치에 올라와있다. 수많은 우수한 성서학자들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성서학 연구물들 또한 많이 산출되고 있고, 또한 한국의 교회가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다.

* 협성대학교 교수, 신약학

하지만 한국의 성서학은 -한때 민중신학이라는 좋은 선례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성서학을 뒤따라가기에만 급급할 뿐, 정작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한국 성서학자들의 우수한 연구물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 연구물들의 참고문헌을 보면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뛰어난 연구물 보다는 서양 학자들의 연구물들에 (종속되었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목을 매고 있는 듯 의존하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¹⁾

왕대일의 지적처럼 지금까지 만들어진 서구의 수많은 성서 비평 방법론과 비평학이 기독교의 진리를 보다 깊이 깨닫는 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성서학과 기독교 신앙이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현실이다.²⁾ 서구 성서학이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해석적 방법론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³⁾ 성서해석에 있어서 과학적 분석과 역사적 뒷자리 탐색에서 멈춘 채 그 너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참된 의미의 해석에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서구적 세계관에 뿌리를 둔 성서해석”의 오류를 답습하게 될 뿐이다.⁴⁾ 이런 차원에서 왕대일이 주장하는 성서의 “경학적 읽기”는 오늘날 한국 성서학이 귀를 기울일 가치가 있는 것이다.

경학적 성서읽기는 기존의 서구 성서학이 기여한 많은 과학적 방법론과 논리적 분석 도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성서 ‘텍스트’를 읽는/듣는 청중들의 문맥 속에서 다시금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따라서 경학적 성서해석은 해석자의 “태도”의 문제이다.⁵⁾ 또한 경학적 성서읽기는 어떻게 하면 “신앙공동체가 읽었던 성서

1) Cf. 왕대일, “우리나라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살펴보십시오,” 「구약논단」 14:3 (2008), 6-8.

2) 왕대일, “경전의 재발견 - 성경을 연주하라,” 「기독교사상」 52:9 (2008), 212-227 [226].

3) 왕대일 “ 성서해석학과 그 패러다임의 전환 - 넓이의 해석에서 깊이의 해석으로,” 「신학과세계」 66 (2009), 7-34 [21-22].

4) 왕대일, “경전의 재발견,” 226.

5) 왕대일, “경학과 역사비평,” 「신학과세계」 72 (2011), 7-32 [22].

본문을 되찾아” 오늘날 우리 신앙공동체로 하여금 그 성서의 말씀이 깨달음을 주고, 말씀을 존중하되 그 글자에 얽매이지 않았던 랍비들의 미취나처럼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맥락에서 다시금 맥박이 뛰도록 하여 그 말씀을 “체현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다.⁶⁾

성경의 말씀이 한국에 들어와 한국의 옷을 입고 한국인의 삶의 터전과 맥락 속에서 한국인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심금을 울린 노력은 개신교 선교 초기 성서 번역과 성서해석(interpretation)의 결과물(representation)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 일례로 제임스 게일과(J. S. Gale, 1863-1937) 이창직(1866-1936)이 만든 『연경좌담』(1923)을 들 수 있다. 비록 서양선교사였으나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가 되도록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게일과⁷⁾ 그의 한국인 동역자였던 이창직은 복음서를 한국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한국적 맥락에서 해석하여 한국적 방식으로 재구현하려고 노력했으며, 그 결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연경좌담』이다.

이 논문은 게일과 이창직의 『연경좌담』을 연구하는 논문이다. 우리는 우선 이 작품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전반적으로 개괄한 후, 그 가운데서 산상수훈 부분을 깊이 살펴볼 것이다. 이 분석을 통해 게일과 이창직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것을 통해 1920년대 한국의 기독교인들과 어떻게 소통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이 작품이 21세기 한국 사회의 맥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야 하는 오늘날 한국의 성서학에게 어떤 교훈을 남겨주는지 살펴볼 것이다.

6) 왕대일, “경학과 역사비평,” 22-24, 27-31.

7) 게일의 한국에서의 사역에 대한 평가를 보려면 한규무, “게일(James S. Gale)의 한국 인식과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 - 1898-1910년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4 (1995), 161-176을 보라. 한규무는 게일이 한국 문화와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사회 정치적 참여 문제에 있어서는 부정적 영향을 끼친 인물로 평가한다.

2. 게일과 이창직의 『연경좌담』(1923)

게일과 이창직의 『연경좌담』은 1923년 조선야소교서회에서 출판된 개신교 가사 작품집이다.⁸⁾ 이 책의 서지사항에는 저자가 J.S. Gale과 C.C. Yi으로 되어있는데, C. C. Yi는 이창직(李昌植, Yi Chang-Chik)을 가리킨다. 이 작품의 한글제목은 연경좌담(演經坐談)이고 영문제목은 *The Gospel as Sung*이다. 연경좌담이라는 제목의 의미는 ‘성경을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듯 연행(演行)한다’는 것인데, 이는 이 작품이 판소리처럼 음악과 이야기(storytelling)와 연기(performance)의 복합적인 기능과 목적과 형태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문제목 또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이 작품은 개신교 가사 장르에 속하는 작품이다. 가시는 고려말기에 시작된 우리 민족 고유의 문학-음악 양식으로서, 기본적으로 시조(時調)처럼 4.4조나 4.3조의 운율을 따른다. 일반적으로 가시는 장편시조처럼 긴 서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시와 산문의 경계선 위에 자리 잡고 있다. 가시는 주로 송서율창(誦書律唱)의 형식에 담겨있는데, 이 단어가 암시하듯 음악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하는 장르이다. 일반적으로 가시는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이나 애정,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충과 효와 예를 칭송하는 주제들로 주로 이루어져있어서 도교나 유교적 요소를 배경으로 한다. 가시는 더 나아가서 종교의 영역 안까지 들어왔는데, 불교나 도교, 천도교와 같은 민족종교, 그리고 기독교까지 가사라는 장르를 차용했다.

기독교에서는 18세기 말 천주교에서 천주가사라는 장르로 도입되었으며,⁹⁾ 한동안 맥이 끊겨 있다가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신교 가사가 생겨

8) 『연경좌담』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현재까지 이 작품을 연구한 것은 김혜영, “연경좌담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2002); 김은아, “노래 복음서 연경좌담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3); 문혁, “『연경좌담』의 제작배경과 문학적 성격,”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 뿐이다. 김혜영과 김은아의 연구는 이 작품을 음악으로서 접근하여 연구한 것이고, 문혁은 이 작품을 가사 “문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연구한 것이다.

9) 천주가사에 대한 개괄적 소개는 이혜정, “천주가사의 제작배경과 내용의 변화,” 『종교연구』

나고 천주가사도 다시 명맥을 잇게 된다. 그러나 1920년대를 끝으로 가사 장르는 기독교에서 사라지고, 이제 더 이상 기독교 가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최초의 기독교 가사는 천주가사로서, 1779년에 이벽(1754-1785)이 지은 ‘천주공경가’와 같은 해에 정약전(1758-1816)이 지은 ‘십계명가’이다.¹⁰⁾ 흥미로운 것은 이벽과 정약전의 이 작품들이 나오게 된 계기이다. 1779년 경기도 여주에 있는 주어사(走魚寺)에서 권철신, 권상학, 김원성, 이충억, 이벽, 정약전 등이 모여 서학을 공부하고 토론을 했는데, 이 강론회의 결과물로 나온 것이 이 두 작품이다.¹¹⁾ 이것은 17세기에 기독교가 한국에 소개된 초창기부터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성경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토론한 후에 그것을 한국적 문맥에서 한국적인 심성으로 색깔을 덧입혀 한국적인 그릇에 담아 새롭게 만들어냈었음을 보여준다. 이후에도 이문우(1809-1840)의 “옥중제성”, 민국가(1778-1840)의 “삼세대의”, 최양업(1821-1861)의 “사향가”와 “십계강론” 등 여러 천주가사가 탄생했다.

그러나 180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사그라지다가 1910-1920년대에 이르러 개신교 측에서 가사를 만들기 시작했다.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 서양의 선교사들이 서양음악의 그릇에 담아주었던 복음이 한국인들의 입맛에 영 맞지 않았고,¹²⁾ 이에 일부 기독교인들이 다시금 우리 민족의 심성에 맞는 우리의 것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담아낼 필요를 느꼈다. 길선주, 고려의, 나준수, 주병호, 백사검, 병촌 등이 개신교 가사 작품을 만들었고, 오늘날까지 전해져오는 개신교 가사의 수는 대략 170편 정도 된다.

34 (2004), 391-420을 보라.

10) 이 두 작품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하성래, “정약전의 십계명가와 이벽의 천주공경가 I,” 『신학전망』 21 (1973), 136-154와 idem, “정약전의 십계명가와 이벽의 천주공경가 II,” 『신학전망』 23 (1973), 156-170을 보라.

11) 이승훈, 「만천유고」 중 ‘십계명가’ 부제에 “己亥 臘月 於走魚寺講論後 丁巽菴 權公相學 李公龍億 作詞寄之”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이것이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는지 말해준다.

12) 이복규, “개신교가사에 대하여,” 『온지논총』 18 (2008), 225-248 [239-241]. 언더우드의 회고도 참고하라. Lillas H. Underwood,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1987 reprint series (Seoul: Royal Asiatic Society, 1987), 245-249.

게일과 이창직의 『연경좌담』은 이 170편 가운데 총 149편의 가사를 담고 있는 가사집이다. 게일은 일찍이 서양적인 말과 음악이 한국인들의 영혼을 어루만지기에는 문제가 많았음을 인지하고 있었고,¹³⁾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었다.¹⁴⁾ 따라서 그는 성경의 말씀이 한국인의 심성에 파고들어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창직과 함께 이 작품집을 만들었다. 이 작품의 전체적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주제	번호 15)	내용과 곡 수 ¹⁶⁾		출처성경/갯수 ¹⁷⁾	비고
프롤로그	1	족보		마 1	별곡 ¹⁸⁾
탄생	1-4	탄생	성탄 4	마2/눅2	별곡
사역	5 - 115 29	준비	세례 1	마 1	별곡
			시험 1	마 1	
		기적 24		마5/막9/눅5/요5	
		가르침 36		마21/눅14/요1	산상수훈 9편:15-23
		갈등	군중과 갈등 4	마1/막1/눅1/요1	
			지도자들과 갈등 16	마5/ 막2/눅4/요5	
				수난예고/에피소드 9	마2/막4/요3
에피소드 19		마5/막4/눅5/요5	사마리아여인, 니고데모, 세례요한, 제자파송, 산상변화		

- 13) J. S. Gale, "A Few Words on Literature," *The Korean Repository* Vol. II, January-December, 1895 (Seoul: The Trilingual Press, 1895), 423-425; 문옥배, "근대교회음악의 한국화 논의와 시도," 『음악과 문화』 5 (2001), 123-147 [127-128]. 그러하였기에 게일은 성경의 말씀을 한국인의 심성에 맞도록 한국화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춘향가, 구운몽, 심청전 등 일반 문학과 더불어 기산 김준근과 함께 『턴로력당』(1895)을 번역하여 출판하기도 했다. 게일의 한국관련 저술 및 번역활동에 관한 서지사항을 보려면 김봉희, "게일(James Scarth Gale, 奇-)의 한국학 저술활동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3 (1988), 137-163을 보라.
- 14) 초기 게일은 한국의 문화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문화의 우수성과 가치를 발견하고 높이 사기 시작했다. 게일의 한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해 보려면, 이상현, "제국들의 조선학, 정전의 통국가적 구성과 유통," 『한국근대문화연구』 18 (2008), 67-100. 그는 특히 『조선설화』(1913)의 번역 발간을 그 전환의 기점으로 잡는다.

수난	116 - 135	작별/유월절 에피소드 8	마1/막1/눅3/요3	
		배판/모의 2	마 1/요1	
		체포재판 7	마3/눅1/요3	
		처형 1	눅1	
		장례 2	마1/요1	
부활	136 - 147	부활 12	마4/막2/눅2/요4	부활아침 현현 담화 중복
승천	148	승천 1	눅1	
결론	149	에필로그 1	요1	

<표 1> 『연경좌담』 내용과 구조

총 149개의 곡으로 구성된 이 가사집은 타티안(Tatian)의 디아테사론(Diatessaron, 2세기 CE 중반)처럼 네 개의 복음서를 예수의 일대기에 맞추어 재구성한 복음서이다. 따라서 나름대로 통일된 서사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은 프롤로그, 예수의 탄생(infancy narrative), 예수의 사역준비와 사역, 수난, 부활, 승천, 그리고 에필로그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에 따른 구성 분포를 보면, 총 149곡 중에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그리고 승천에 대한 내용이 각각 1곡을 차지하고, 탄생이 4개이다. 반면에 예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110곡으로 73.8%를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수난에 대한 주제가 20곡으로 13.4%, 그리고 부활 이야기가 12곡으로 8.1%를 차지한다.

110개에 해당하는 사역 이야기의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기적에 대한

15) 각 곡의 번호는 필자가 구분의 편의를 위해 각곡의 순서에 따라 부여한 번호임.

16) 곡의 주요 내용을 분류한 것이며 뒤의 숫자는 해당 주제를 다룬 곡의 개수임.

17) 계열과 이창직이 각 곡의 제목에 출처 성경과 장절을 부기(附記)하였으나 이 도표에서는 출처 복음서만을 표시하였으며, 옆에 표시한 숫자는 그 출처 복음서의 개수임. 예시: 사역에 해당하는 내용은 5-115번째 곡들에 담겨있으며, 이 중에서 기적을 다룬 곡은 총 24개이고, 이것들은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서 각각 5개 씩 사용했고, 나머지 9개 곡은 마가복음을 그 출처로 삼고 있다.

18) 처음 7개 곡에는 “별곡”이라고 별도로 표기되어 있으며, 각 곡은 “찬송하세 할렐루야”라는 문구로 마무리된다.

이야기가 24개(21.8%), 가르침이 36개(32.7%), 등장인물들과의 갈등이 29개(26.4%), 그 외의 일반적인 에피소드가 19개(17.3%)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복음서 출처별로 보면 마태복음에서 54개(36.2%), 마가복음에서 23개(15.4%), 누가복음에서 39개(26.2%),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33개(22.1%)로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마가복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소 적다. 그러나 복음서 출처는 게일과 이창직이 부기(附記)로 각 곡의 제목 옆에 표기한 것에 따른 것일 뿐 그 각각의 내용이 실제로는 각 복음서들끼리 중복되어 나타나므로 복음서의 분포 수치가 중대한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이 부기로 각각의 복음서 출처를 표기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 출처가 비슷한 비중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이들이 네 개의 복음서들을 골고루 담아내고자 의도했음을 암시한다. 그 일례로서, 부활 현현 장면을 다루는 부분들은 각 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부활현현 내러티브로 재구성한 것이 아니라, 각 복음서에 있는 부활현현 이야기를 모두 모아놓은 것들이며, 이로 인해 부활현현 이야기가 서로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문제가 여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게일과 이창직이 무슨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연경좌담』을 만들었는지는 아래에 있는 이 가사집의 서문에 잘 나타나있다.

그윽히 생각건대 시 삼백편(時三百篇)은 일언이폐지왈(一言以蔽之曰) 스무사(思無邪)라 흠으로 동양인스가 송독(誦讀) 하며 음영(吟詠) 흠을 마지아니 하거니와 구주예수의 일딴성적(一代聖蹟)이야 엇지 송독하며 음영할뿐이리오마는 스복음의 간편(簡編)[책]이 호한(浩汗) 하고[아주 많고] 스실이 중복하며 년디가 도착하야 두셔(頭緒)를 찾거어려운고로 이에 뜻이잇스지 다년이나 겨를치못 하 엇더니 하느님이 편리를주사 적은틈을엇고 스복음을 가져 년디차셔로 요긴한 데목을 톱 하야 좌담(座談)테로 찬술(纂述) 하야 연경좌담(演經座談)이라 일흠하니 초동목수(樵童牧叟)라도 혼변보면 료연(瞭然)히[분명히] 끼듯고 력연(歷然)히 기억홀지라. 이에 구주의 진리가 뇌슈(腦髓)에 깊히드러가 니져버리고 하 여도 엇지못 하며 버리고져 하 여도 능치못 하고 고난시에 노래 하야 위로를 엇으며 즐거울 때에 불너 낙을 엇으리니 엇지 아름답지 아니리오. 다만 문소(文辭)가 황무(荒蕪) 하 고

의스가 줄습(拙澁) 허야 진도[진리의 도]의 만일[가득] 침을 친발(闡發)치닐리 드러내지 못함을 한하거니와 **조선인사의 영성수양상(靈性修養上) 한 도움만 될 진대** 나의 숙석(宿昔)의 지원(志願)이 필(筆)한줄노 아노라.¹⁹⁾

위의 서문에 따르면 저자들은 공관복음서 문제(Synoptic Problem)를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개일과 이창직은 복음서들의 내용이 서로 중복되고 각 에피소드들이 혼재하여서 독자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간파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자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복음서에 담긴 예수의 이야기들을 일목요연하게 재구성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필요를 느꼈다. 저자들의 복음서 재구성 방식은 (1) 네 개의 복음서를 종합하여 (2) 시간적 흐름의 순서대로 다시 정리되되 (3) 저자들이 생각하기에 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부분들을 골라내는 방식이다. 저자들의 이러한 재구성 방식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은 배움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재구성 복음을 한번만 봐도 쉽고 분명하게 깨닫고 뇌리에 깊이 들어가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저자들이 한국적 상황에서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가사 장르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앞서 간단히 언급한 것처럼 가사 장르는 4.4조, 4.3조 등의 운율을 따른다. 송서율창은 경전에 운율을 덧붙임으로써 읽고 암송하는 데 용이하도록 하여 그 말씀을 쉽게 잊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한국의 전통적 운율 방식인데, 이 송서율창 방식을 따르는 가사 장르로써 『연경좌담』이 복음서를 재구성했다는 것은 저자들이 한국인들에게 가장 익숙하게 다가오는 가장 한국적인 방식으로 복음서를 접하게 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여준다.

저자들이 이러한 복음서 재구성 작업 방식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목적은 (1) 이것을 듣고, 읽고, 부르는 가운데 독자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로를 받고 (2) 즐거울 때에는 이것을 통해 기쁨을 얻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19) J. S. Gale, C.C. Yi, “서문” 『연경좌담』 (서울: 조선야소교서회, 1923). (1) 붉은 글씨는 필자의 강조. (2) 꺾쇠괄호[]는 단어의 뜻풀이를 위한 필자의 삽입.

이것을 통해 (3) 한국인들이 깊고 성숙한 영성을 갖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서문에 나타난 이 저술 목적은 앞서 언급했던 왕대일의 경학적 읽기처럼 성경을 통해 독자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귀를 얻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그 말씀이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들이 깊은 영성을 갖추고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에 상응한다.²⁰⁾

게일과 이창직이 추구했던 복음서 재구성은 마치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한 목적과 방식과 유사하다.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인물에게 바치는 헌정사(눅 1:1-4; 행 1:1-2)는 누가가 어떠한 목적으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누가행전을 저술했는지 밝히고 있다. 2천 년 전 구전복음 전승(oral tradition)이 누가행전이라는 글로 재구성될 때 이미 경학적 읽기의 원리는 사용되었고, 게일과 이창직의 『연경죄담』 또한 이러한 원리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연경죄담』 산상수훈 분석

3.1. 구조와 형식적 특징

20) 게일은 한글 성경 번역에도 많은 기여를 했는데, 초기에는 한글전용 문체에 집중하다가 1900년대로 넘어가면서 국한문 혼용체 번역으로 입장을 전환했다. 그 이유는 한국어의 특성상 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고, 이것이 도리어 한국인들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서였다. 이러한 것에는 지식인층 선교를 염두에 둔 측면도 없지 않다. 이러한 생각은 초창기에 순수 한글을 수용하는 데 국한문 혼용체가 방해가 된다는 생각을 하는 다른 선교사들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도리어 이러한 번역 스타일이 한국인들에게 더 맞아떨어졌고, 차후에 공인 번역 성서들은 게일의 사역 성서 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김성은, “선교사 게일의 번역 문체에 관하여 - 천로역정 번역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31 (2009), 199-227 [219-220]; 이상현, “유몽천자 소재 영미문학작품과 게일(J. S. Gale)의 국한문체 번역실천 - 개신교 선교사의 근대문체를 향한 기획과 그 노정(I),” 『서강인문논총』 42 (2015), 99-154 [142-143].

『연경좌담』중에서 15번째 가사부터 23번째 가사까지 총 9개의 작품이 산상수훈(마 5-7)을 담고 있다. 각 가사의 제목은 “산상보훈가 데일”, “산상보훈가 데이”, “산상보훈가 데삼” 등 뒤에 숫자를 연차적으로 매기는 방식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져 있으며, 그 내용 구성은 아래 <표 2>와 같다.

제목	성경본문	주요내용
산상보훈가 데일	5:1-12	복의 선언
산상보훈가 데이	5:13-16	소금과 빛
산상보훈가 데삼	5:17-26	율법과 선지자, 제 1 초월제 (살인)
산상보훈가 데스	5:27-32	제 2초월제, 제 3 초월제 (간음, 이혼)
산상보훈가 데오	5:33-42	제 4초월제, 제 5 초월제 (맹세, 보복)
산상보훈가 데륙	5:43-48	제 6 초월제 (원수사랑, 결론)
산상보훈가 데칠	6:1-18	구제, 기도, 금식
산상보훈가 데팔	6:19-34	하늘의 보좌, 하나님과 맘몬, 염려함. ²¹⁾
산상보훈가 데구	7:1-28	심판, 구함과 받음, 좁은 문, 나무와 열매, 행함, 반석위에 지은 집

<표 2> 산상보훈가의 구조와 내용

9개의 산상보훈가의 구조와 내용에 있어서 다음 몇 가지 특이사항이 발견된다. (1) 비록 일부 어구나 표현 등을 생략, 추가, 변경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산상수훈 본문의 거의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다. 다만,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다는 것에 대한 부분(6:22-23)이 생략되어 있다. 이 부분이 생략된 이유는 문맥의 연결성 문제 때문으로 추측된다. 6장 19-21절은 재물을 어디에 쌓아둘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 24절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말하는 구절이기에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만, 이 사이에 22-23절이 삽입될 경우 자연스러운 문맥의 흐름이 깨질 수 있다. 물론 22절의 “눈이 성하다”(haplous)의 개념을 재고할진대, 이 두 절이 재물관에 대한 내용으로서 전후 문맥에 맞아떨어지기는 하지만, 개일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이 부분을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²²⁾

21) 6:22-23 생략됨.

22) 마 6:22-23의 번역과 전후 문맥의 연결에 대해서는 양재훈, 『웨슬리가 전한 산상수훈』 (서울: KMC, 2015), 260-261을 보라.

(2) 각 곡은 전체적으로 4.4조와 4.3조의 운율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운보 규칙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거의 없을 정도로 형식적 규칙성에 있어서 높은 일관성을 보인다. 운율을 맞추기 위해 게일과 이창직은 종종 성경 본문의 의미에서 벗어나는 것까지 추가하거나 생략한다. 예를 들어,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부분에서 “기도 만히 흘지어다”(산상보훈가 데륙)로 하여 성경 원문의 의미에는 없는 “많이” 기도하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많고 적음을 대조하는 의미의 강조나 변경의 목적 보다는 운율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차즈라 맞날지며 문을 쌍쌍 두다리라”(산상보훈가 데구)에서도 성경 원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는 상관없는 의성어를 추가하는데, 이 또한 열심히 찾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그보다는 단순히 운율을 맞추기 위한 추가로 이해된다. “주여 주여 나의 주여”(산상보훈가 데구) 역시 이와 같은 예에 해당한다.

또한 “이 세딕에 심장흐는 너희의 무리들은”이나 “이 세상에 처흐야셔”(산상보훈가 데오)도 성경 원문에서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원래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게일과 이창직이 추가한 것인데, 이들의 경우 운율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산상수훈의 당위적 명령성과 현실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 즉, 산상수훈에 대한 게일과 이창직의 이해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한 예로 “은밀흐 복락으로 후히 갑하 주시리라”(산상보훈가 데칠) 구절도 손꼽을 수 있다. 성경 본문에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갱이주시는 것으로 말하는데, 게일과 이창직은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히 갱이주신다는 것으로 성경 본문에 없는 ‘은밀함’을 추가한다. 혹은, 갱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한 살펴보시는 모습처럼 ‘은밀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저자들이 해석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은밀흐 디 계신 텃부 은연지중 늬모르게 선히갑하 주시리라”(산상보훈가 데칠) 또한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여러분 드러보오”, “또흐 비유 드러보소”(데이), “또흐 교훈 드러보소”(데삼, 데스, 데오, 데륙), “이 세상 사름들야”(데칠), “신자여 드러보

소”(데팔, 대구) 등과 같이 판소리적 특징들이 발견된다.²³⁾ 또한 “씩어져 없서지는 이 세상 직물 우에 밋음을 두라는가 텃당에 모하 싸흔 영원흔 괴업 우에 밋음을 두라는가”(산상보훈가 데팔) 역시 판소리 소리꾼이 창을 하다가 중간에 청중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면서 소통하는 판소리 특유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산상보훈가 대구) 또한 소리(昌)를 하다가 직접 청중들을 향해 말을 거는(아니리) 판소리의 특성을 나타내는 예이다. 이처럼 『연경좌담』은 성경의 말씀을 한국적으로 재구현하는 데 있어서 곳곳에 한국인의 심성에 잘 와 닿는 판소리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말씀이 청자/독자들의 심금을 건드리도록 하였다.

(4) 산상보훈가 데일, 복의 선언을 다루는 부분에서 시적 운율을 살려내기 위해 시적 정형구조를 사용한다. 각 복의 형식은 덕목의 규정(“-하는 자여”)/ 복의 선언(“너는 복이 있는 자라”)/ 보상 약속(“-할 자가”)/ 종결구(“너 아니오 누구인가”)로 반복되어 나타난다. 이것을 통해 게일과 이창직은 마태가 의도했던 바, 마카리오이(makarioi) 두운으로 시작하는 시적 양식을 한국식으로 살려내고 있다.²⁴⁾ 왕대일은 번역 행위는 단지 뜻이 서로 통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없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원문의 의도했던 문예적 효과까지도 독자들에게 전달해줄 수 있어야 하고,²⁵⁾ 원천 언어보다는 “수용언어의 표현이 살아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²⁶⁾ 산상

23) 판소리에 대한 개괄적 소개는 양재훈, 『판소리의 신학적 풍경』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31-66을 보라.

24) 이러한 것은 문학적 기능동등성에 따른 번역(LiFe)의 원리를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번역 원리에 따른 사례를 보려면 티모시 윌트, 이환진 역, “문학적 기능의 동등성 - 그 몇 경우,” 『성경원문연구』 15 (2004), 117-153을 참고하라. 윌트는 시편 66편을 이러한 방법으로 번역하여 그 예를 제시한다. 또한 문학적 기능동등성 번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언스트 R. 웬들랜드, 정제순, 『문학적 기능 등가 번역 I』 (서울: 태학사, 2012)도 참조하라.

25) 왕대일, “성서 번역 새로 보기 - 문예적 번역과 문학 기능 동등성,” 『성경원문연구』 20 (2007), 52-73 [68-70].

26) 왕대일, “번역 속의 주석, 그 가능성과 한계 - 내용 동등성 번역의 경우,” 『성경원문연구』 16 (2005), 62-78 [64].

보훈가 복의 선언 부분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 또한, 산상수훈의 복의 선언이 8개인가 9개인가에 대한 논란은 분분한데, 산상보훈가 데일의 구조로 미루어 볼 때 게일과 이창직은 8개로 복을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²⁷⁾

3.2. 산상보훈가의 신학적 해석

산상보훈가에는 게일과 이창직이 산상수훈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했는지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여기에서 산상수훈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삶의 신앙적 규범으로 해석된다. 산상수훈의 대상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이미 2세기 초 문서인 <열두 사도의 가르침>(Didache 6:2-3)에서 볼 수 있듯이 산상수훈 해석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할 정도로 오래된 것이다. 이후에도 유스티아누스, 이레네우스, 티툴리아누스, 크리소스톰, 아우구스티누스 등 여러 교부들과 중세시대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중적 기준(Double Standard), 마르틴 루터, 존 웨슬리(J. Wesley), 근대에 이르러는 톨스토이의 입장에 이르기까지

27) 복의 선언이 8개인가, 아니면 9개 (8+1)인가 등에 대한 논의는 분분하다. 예를 들어, 에밀 푸에쉬(E. Puech)는 사해문서(4Q425)와 집회서의 평행을 가지고 8+1의 구조를 주장한다. Emile Puech, “4Q525 et les péripocopes des Béatitudes en Ben Shira et Matthieu,” *Revue Biblique* 98:1 (1991), pp. 80-106.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B. Viviano, “Beatitudes Found among Dead Sea Scrolls,” *Biblical Archeological Review* 18 (1992), 53-55, 66를 참고하라. Cf. 오덕호, 『산상설교를 읽읍시다』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2), 63; 도널드 헤그너, 채친석 역, 『마태복음(상)』 (서울: 솔로몬, 1990), 209-213; D. Allison, *The Sermon on the Mount* (NY: Crossroad, 1999), 26, 59; idem, “The Structure of the Sermon on the Mount,” *JBL* 106/3 (1987), 423-445 [429-430]; Betz, Hans Dieter. *The Sermon on the Mount: A Commentary on the Sermon on the Mount Including the Sermon on the Plain (Matthew 5:3-7:27 and Luke 6:20-49)* (Hermeneia Commentar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105-106. 복의 선언의 형성에 대한 논의를 보려면, 김희성, “축복선언(마 5:3-12)의 형성사적 고찰(I),” 『신약논단』 1 (1995), 44-68; idem, “축복선언(마 5:3-12)의 형성사적 고찰(II),” 『신약논단』 2 (1996), 7-41을 보라.

이 문제는 오늘날까지 논의되는 문제이다.²⁸⁾

게일과 이창직은 산상수훈을 오늘날 신앙인들이 실제의 삶에서 적용하며 실천해야하는 당위적 명령이자 규범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산상수훈은 온 세상 사람들이 대대로 모범을 삼아 따르고 지킬 규범이며(산상보훈가 데일), 단순히 막연한 추상적 법칙이 아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범으로 이해된다(산상보훈가 데오). 따라서 게일과 이창직은 “너희들은 명심하라”(산상보훈가 데삼, 데스, 데오), “이 말대로 준행하라”(산상보훈가 데구) 등과 같이 마태복음 원문에 없는 문구를 삽입하여 이 말씀을 듣는 이로 하여금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삶 속에서 실제로 준행하라고 촉구한다. 이들은 또한 “씩어져 없서지는 이 세상 직물 우에 믿음 두라는가 텃당에 모하 싸흔 영원흔 기업 우에 믿음 두라는가”(산상보훈가 데팔)에서 엿볼 수 있듯이, 재물에 관한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이러한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결단을 요구한다.

『연경좌담』 (1923)	『신역 신구약전서』 (1925) ²⁹⁾
믿음이 뛰어난 자여. 너는 복이 있는 자라. 천국을 얻을 자가. 너 아니오 누구인가.	믿음이뛰인자가福이잇느니 天國을누릴거시오
인통을 받는 자여. 너는 복이 있는 자라. 만흔 위로 받을 자가. 너 아니오 누구인가.	哀痛호는자가福이잇느니 慰勞를받을거시오
겸손한 온유 자여. 너는 복이 있는 자라. 토대를 얻을 자가. 너 아니오 누구인가.	溫柔호는자가福이잇느니 土地의基業을닐을거시오
의를 소모하는 자여. 너는 복이 있는 자라. 장력에 빈부를 자. 너 아니오 누구인가.	義를주리고목 믿음又치思慕호는자가福이잇느니 빈부름을얻을거시오
스랑 만든 준비자여. 너는 복이 있는 자라.	慈悲호는자가福이잇느니

28) 산상수훈에 대한 입장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해서는 Harvey K. McArthur, *Understanding the Sermon on the Mount* (NY: Harper & Brothers, 1960)의 제 4장과 D. C. Allison, *Sermon on the Mount*, 1-26; Jayhoon Yang, “J. Wesley and the Addressee of the Sermon on the Mount in his Standard Sermons 16-28,” *KJCS* 60 (2008), 25-42를 참고하라.

즈비흙 밧을 자가. 너 아니오 누구인가.	矜恤히녁임을밧을거시오
막음이 맑은 자여. 너는 복이 있는 자라. 하느님 보일 자가. 너 아니오 누구인가.	막음이淸潔호者가福이잇느니 하느님을볼거시오
화목케 호는 자여. 너는 복이 있는 자라. 하느님 아들이란. 명칭을 엇을 자가. 너 아니 오 누구인가.	和睦케호는者가福이잇느니 하느님의아들이라닐꺄를거시오
세상에서 의위호야. 핍박을 밧는 자여. 너는 복이 있는 자라. 천국을 엇을 자가. 너 아니오 누구인가.	義를爲호야逼迫밧는者가福이잇느니 天國을누리리라
	너희가나를因호야羞辱과逼迫과謀陷을밧으면 福이잇스리니깃버호고즐거워호라하늘에서밧 을 賞이크리라이 前에 先知者가이꺄치 逼迫을 밧앗느니라

<표 3> 『연경좌담』과 『신역 신구약전서』 복의 선언 부분 대조

위의 <표 3>은 『연경좌담』과 게일이 1925년에 개인적으로 윤치호를 통해 번역 발간한 『신역 신구약전서』의 복의 선언 부분을 대조한 표이다. 이 두 문서는 2년의 간격을 두고 만들어진 것들로서 두 문서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신역 신구약전서』는 게일이 성경을 ‘번역한 것이기에 성경의 원문에 보다 충실할 수밖에 없으나, 『연경좌담』의 경우 그가 가사 장르에 담아낸 창조적인 작품이므로 개인적인 의견이나 성경 해석의 결과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둘의 차이점을 대조해보면 게일과 이창직이 독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이 어떤 것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보다 쉽게 알 수 있다.

게일과 이창직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독자/청자 개개인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 예를 복의 선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복의 선언을 다룬 산상보훈가 데일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한 자여, 너는 복이 있는 자라, -한 자가 너 아니오 누구인가”와 같은

29)奇石(J.S. 게일)역, 『新譯 新舊約全書』(京城: 基督教彰文社, 1925). 원문에는 세로쓰기로 되어있으며, 국한문 혼용이고 띄어쓰기가 없다. 다만 위 도표에서 줄 바꿈을 한 것은 대조의 편의를 위해 필자가 임의로 한 것이다.

정형화된 시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본디 마태복음 원문에서는 이 인칭구조가 2인칭 복수로 되어있는 9번째 복의 선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복의 선언이 3인칭 복수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모든 대상을 “너”라는 2인칭 단수 즉, 독자/청자 개개인을 향한 것으로 바꾸어놓았다.

둘째로, 행실에 따른 보상을 내세의 보상으로 지연한다. 구제에 관한 가르침(마 6:1-5)부분에서 계일과 이창직은 구제 행위에 따른 하나님의 보상을 내세에 주어지는 것으로 해석한다. “즈기의 올흔 것을 붉히 드러내라 하는 [...] 하늘의 아버지의 장리의 빛을 상을 결코 잊지 못하리라. [...] 텃단에서 빛을 복을 디신하야 빛느니라.”(산상보훈가 데칠) 마태복음의 원문 상용 구절에는 행위에 따른 하나님의 보상이 내세에 주어지는 것으로 암시하는 부분은 없으며, 계일 자신도 『신역 친구약전서』에서 “너희아버지의賞을 잊지못하리라. [...] 제賞을임의빛앗느니라”로 번역함으로써 내세의 이미지를 없앴다. 그런데 『연경좌담』에서는 이 보상을 지연함으로써 현세의 삶과 내세의 보상을 연결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관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가르침(마 6:19-21)에 따른 계일과 이창직의 추가 부분에서도 엿볼 수 있다. 위에서 인용하여 언급한 “씩어져 없서지는 [...] 믿음을 두라느가” (산상보훈가 데팔) 부분은 원문에 없는 추가 부분으로서, 현세의 유한함과 내세의 영원함을 대조시키고 있으며 영원한 내세의 것에 더 가치를 둔다.

현세의 행동이나 태도와 그에 따른 결과가 내세에 이루어진다는 입장은 복의 선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와 그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대한 원문(마 5:6)에서는 결과로 주어지는 배부름이 현세에 이루어지는지 내세에 이루어지는지 분명히 언급되지 않고 있다.³⁰⁾ 그러나 계일과

30) 배부름의 시제는 미래시제로 되어 있으며, 학자들이 잘 해석했듯이 배부름이 종말론적 충족을 가리킨다. 헤그너, 『마태복음(상)』, 216; H.D. Betz, *Sermon on the Mount, notes on 5:6*을 보라. 그러나 종말론적이라는 의미가 현재적, 미래적 의미 모두를 포괄하므로 어느 한편만을 단정할 수는 없다. 도리어 내세보다는 현세의 삶에서의 종말과 구원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 차정식, “구원론 이전의 구원론 - 산상수훈의 경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9 (2007), 47-66을 보라. ‘의에’(ten dikaiosunen)라는 단어가 “의라는 것으로 인해 현재 육체적으로 굶주리는 것”과 “의를 간절히 원하는 것” 등 두 가지 의미 모두를

이창직은 “의를 스모흐는 자여. 너는 복이 있는 자라. 장릭에 비부를 자. 너 아시오 누구인가.”(산상보훈 데일)로 다시 풀어냄으로써 그 보상을 내세의 것으로 미루어놓았다. 또한 이들은 “주여, 주여”라고 말로만 할 뿐 행함이 없는 이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구절(마 7:23)에서 “소릭 질너 닐으기를” (산상보훈 데구) 문구를 넣었다. 마태복음 원문은 공언하다(homologeso)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심판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고, 게일 또한 『신역 신구약전서』에서 “복히닐으기를”로 번역하는 반면,³¹⁾ 『연경좌담』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이들을 향해 소리를 질러서 심판하는 것으로 다시 그려냄으로써 심판의 준엄함을 강조한다.

셋째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신명(神名)을 살펴볼 수 있다.³²⁾ 마태복음에 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거의 대부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문구를 일관되게 사용한다.³³⁾ 게일 또한 『신역 신구약전서』에서 6:26, 32에서만 天父라고 할뿐 그 외에는 모두 “(하늘에계신) 아버지”로 - 물론 결국 이 둘이 같은 뜻의 단어이지만 - 일관되게 표현한다. 이것은 “하늘”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마태의 말버릇이기도 하거니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정체성 또한 “하나님의 자녀”(5:9, 45)로서 규정된다. 반면에 게일과 이창직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로 줌신 (산상보훈가 데삼), 하느님 (데일, 데오, 데룩, 데팔, 데구),

내포하는데, 게일과 이창직은 후자의 의미로 (“사모하는”) 해석했다. 이 경우 결과로 주어지는 배부르게 된다는 것 또한 추상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며 미래적, 특히 내세의 보상적 의미를 더욱 짙게 띄게 된다. 이에 대한 웨슬리의 해석도 참고하라. J. 웨슬리, 양재훈 역, 『웨슬리가 전한 산상수훈』, 58-63.

31) 마태는 “그때에”(tote)라는 단어를 통해 이 심판이 종말론적 심판임을 말한다. 도날드 헤그너, 『마태복음(상)』, 347.

32) 한국 개신교에서 신의 이름 신명(神名) 변화와 하나님으로의 성경번역 정착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려면 최태영, “기독교 신명고,” 『국어국문학』 124 (1999), 1-20; 임희국, “성경의 한글번역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님 이름 논쟁,”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신학과 실천』 15 (2014), 89-115을 보라. 이들은 ‘하나님’으로 신명이 수렴된 것에 있어서 게일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

33) 5:16, 45, 48; 6:1, 4, 6, 8, 9, 14, 15, 18, 26, 32; 7:11, 21.

턴부 (데칠, 데팔), 하늘에 계신 주(데이), 우리 주 하느님(데이, 데팔), 주(데삼), 하느님 아버지(데칠, 데구), 하늘 위에 아버지(데칠) 등 다양하게 표현한다. 그러나 성경번역 초창기에 많이 혼용되어 나타나던 상제(上帝)나 하느님, 신 등의 표현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1923년 경 이미 게일에게 있어서 한국의 토착 종교에서 사용하던 신명들은 탈락하고 ‘하느님’으로 수렴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눈여겨 볼 것은 예수를 가리킬 때 메시아(산상보훈가 데삼)라는 호칭을 마태복음 원문과 달리 추가하여 적었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게일과 이창직은 곳곳에서 산상수훈 본문과 달리 수정이나 추가를 통해 자신들의 성서 해석의 색깔을 드러낸다. (1) 산상보훈가 데일 부분: 복의 선언 부분에서 “겸손한 온유자여”라고 함으로써 ‘온유함’의 개념을 겸손함으로 해석한다. ‘의에 주리고 목마름’을 ‘의를 사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ten dikaiosunen을 전치사 dia의 생략으로 인한 목적격이 아닌 타동사의 목적격으로 이해했다.

(2) 산상보훈가 데이 부분: 소금이 맛을 잃어 밖에 버려져 밟히는 것 뒤에 “신자도 이와 같하. 밟음이 타락하면, 우리 주 하느님의. 브림을 당하리라.” 부분을 추가한다. 이것을 통해 소금이 맛을 잃는 것을 ‘믿음을 저버리고 타락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6:16)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마태복음은 “너희의 착한 행실”(6:16)을 제시하지만, 게일과 이창직은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서 이를 이해함으로써 종교개혁 전통의 관점을 견지한다. 이것은 세상에 비추는 빛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이들의 이해에서도 발견된다. 마태는 “너희의 빛을 비추어”(6:16)라고만 언급하지만, 이들은 “주의 빛 받은 자는 [...] 그 빛을 빛초이라”고 함으로써 세상에 비추는 그 빛이 주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그 빛을 반사해내는 것으로 풀어난다.³⁴⁾

(3) 산상보훈가 데삼: 게일과 이창직은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5:22)을

34) 이러한 해석적 관점은 웨슬리에게서도 발견된다. J. 웨슬리, 양재훈 역, 『웨슬리가 전한 산상수훈』, 83-84, 133-134.

‘형제로 하여금 화가 나도록 만드는 것’으로 이해한다. 『신역 신구약전서』에서도 “兄弟의게怒하느者”로 번역하는데, 여기에서는 자신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 하여금 화를 내도록 부추기는(“격발하게 흥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밋친놈이라 흥는者는”(5:22)을 “어리석은 자라 흥며 흘썩리는 사름들은”으로 표현했는데, ‘미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모욕적 욕설인 ‘라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런데 게일과 이창직은 추가적으로 “흘썩리다” 리는 표현을 덧붙여서 이 구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이 단어는 “남을 업신여겨서 함부로 냉정하게 뿌리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들은 남에게 ‘라가’라고 말하는 행동에는 상대방을 낮잡아보는 교만한함이 담겨있음을 발견했다. 그러하기에 이들은 “제물을 드리려는”(5:23) 구절에 “겸손하게 나올 쎄에”라는 구절을 추가적으로 삽입하여 이 첫 번째 초월제의 문제를 ‘교만과 겸손’의 틀로 바라본 것이다.

(4) 산상보훈가 데스: “간음하지 말라”(5:27)는 구절은 출애굽기 20장 14절을 가리키는 것인데, 게일과 이창직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놈의 녀인 득 흘 쎄에” 라고 덧붙여서 이 구절을 출애굽기 20장 14절이 아닌 20장 17절과 연결해서 해석한다. 한편, 게일은 『신역 신구약전서』마태복음 5장 27절 본문에 괄호를 삽입하여 이 본문이 출애굽기 20장 14절에서 온 것임을 명시한다. 이들이 이런 표현을 추가한 것은 남녀 간에 가림을 심하게 하는 당시 한국 사회의 유교적 문화를 인식한 결과일 수도 있다. 게일과 이창직은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5:29)에 “별안간”이라는 단어를 추가하는데, 이로써 지옥불의 고통의 영원함과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고통의 순간적임을 대조시켜서 독자/청중들로 하여금 지옥의 형벌을 면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는 그 고통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5) 산상보훈가 데오: 게일과 이창직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 하라”(5:37)는 구절 뒤에 “다토지는 말지어다. 시비에 덕히야서 과격하게 하는 말은”이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이들은 우선 이 상황이 시비를 가리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한 후, 일차적으로 분쟁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다. 그리고 일단 다툼이 시작되면 과격한 언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다. 이 가르침을 통해 예수께서 의도하신 것은 의사를 표현함에 있어서의 거짓됨이 없는 진정성을 가지는 것인데, 이들은 상대방과의 대화에 있어서의 내적 진정성보다는 대화를 나눔에 있어서 말을 하는 표현의 태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해석한다.

이들은 또한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5:41)의 구절을 “동행 혼자 간청커든”이라고 바꾸어놓고, 이어서 “후한 뜻을 발표하야 십리 동행 더욱 도쿄”라고 추가하고 변경했다. 마태복음 본문(anggrucin)은 로마제국의 유대인 강제 징발의 상황을 암시적으로 전제한다.³⁵⁾ 그러나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간청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따라서 그에 대한 반응도 “후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으로 해석했다. 게다가 “더욱 도쿄”라는 말을 써서 로마제국의 황포의 문맥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그러나 게일이 이러한 성경적 문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신역 신구약전서』 본문에서 게일은 “臆志로五里를가자하거든”이라고 번역함으로써 이것이 간단한 부탁이 아니라 억압적 상황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한다.

4. 나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게일과 이창직의 『연경좌담』을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짧은 선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뛰어난 학자들을 배출한 한국의 성서학이 그 위상에 걸맞은 한국적 성서신학의 자리매김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기성찰의 한 예시의 목적으로 나온 것이다.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한국의 시공(時空)을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성서의 텍스트(文)가 어떻게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言)으로서 그 영적인 권위를 갖고(經) 그들의 삶을 바꾸고 어루만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성서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35) 도날드 헤그너, 『마태복음(상)』, 265-266.

어떻게 자기 몫을 해 낼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한국의 성서학은 경학적(經學的) 성서읽기에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과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례로 우리는 개일과 이창직이 만든 『연경좌담』(1923)을 연구했다. 이 책의 영문제목인 *The Gospel as Sung*이 암시하듯이, 이것은 네 개의 복음서를 읽고 해석하여(interpretation) 개신교 가사리는 한국적인 예술 장르의 그릇에 담아 새롭게 펼쳐낸(representation) 것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100년 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었으며, 우리의 언어로 한국이라는 문맥에 놓인 한국인들에게 어떻게 재구현했는지 분석했다. 우리는 이 작품의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주제와 성경인용 방식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저자들이 사복음서를 풀고루 담아내려 하였음을 발견했다. 또한 이 작품의 서문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저자들이 경학적 성서 읽기를 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총 149개의 가사 작품 중에서 9개로 구성된 산상수훈 부분의 가사들인 “산상보훈가” 연속물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우리는 먼저 산상보훈가의 구조와 형식적 특성을 살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작품들 가운데 판소리적 특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고, 복의 선언(Beatitudes) 부분과 같이 문예적 특징을 살려냄으로써 청중들에게 성서의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저자들이 노력했음을 주장했다. 이어서 우리는 산상보훈가에 담긴 신학적 색채들을 살펴보았다. 첫째, 산상보훈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신앙인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당위적 명령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결단을 촉구한다. 둘째, 마태의 해석과는 달리 산상보훈가는 행실에 대한 보상을 내세의 것으로 지연시킨다. 셋째, 마태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아버지-자녀’의 관계로 집중하고 있지만, 산상보훈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다 폭넓게 규정한다. 넷째, 마태는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전반에 걸쳐 행함을 강조하는데 반해, 산상보

훈가는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믿음의 문제로 해석하는 성향이 있으며, 이는 게일과 이창직이 종교개혁 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했다는 흔적을 보여준다. 그 외에도 이 논문에서 우리는 이들이 마태의 관점과는 다르게 산상수훈을 해석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게일이 번역한 『신역 친구약전서』(1925)와 비교하여 분석했다.

한국의 성서신학은 100년을 넘어섰으며, 이제 새로운 성서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고유한 빛깔을 지닌 한국의 성서신학을 만들어가야 한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닌 술집이 되거나 입장료 수익을 올리는 관광 명소가 된 서구의 교회와, 교회가 그런 지경이 되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테이블 위에서 학문만 논할 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서구의 성서신학을 보면서 한국의 성서신학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말라 죽어가는 서구의 성서신학의 무덤가를 막연한 존경심으로 어슬렁거리기 보다는 우리 한국의 살아있는 성서신학을 만들어가야 한다. 1937년 게일의 죽음을 추모하며 정태웅이 남긴 글에는 게일이 생전에 남긴 말이 담겨있는데, 게일이 남긴 그 말이 우리의 현주소를 여전히 부끄럽게 하는지 모를 일이다. “조선 사람은 서양 것은 알아도 조선 것은 모른다.”³⁶⁾

<주제어>

연경좌담, 산상수훈, 한국적 성서해석, 게일(J.S. Gale), 이창직, 성경번역, 개신교 가사

<Key Words>

The Gospel as Sung, Sermon on the Mount, Korean Biblical Interpretation, J.S. Gale, Yi Chang-Chik, Bible Translation, Protestant Gasa

* 접수일 2019년 1월 20일, 수정일 2019년 3월 3일, 게재 확정일 2019년 3월 20일

36) 정태웅, “조선학의 거인,” 『월광』 18 (1937), 96. 한규무, “게일의 한국 인식”, 163에서 재인용.

참고문헌

- 奇一 (J.S. 게일) 역, 『新譯 新舊約全書』. 京城: 基督教彰文社, 1925.
- 김봉희, “게일(James Scarth Gale, 奇一)의 한국학 저술활동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3 (1988), 137-163.
- 김성은, “선교사 게일의 번역 문체에 관하여 - 천로역정 번역을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와 역사』 31 (2009), 199-227.
- 김은아, “노래 복음서 연경좌담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3.
- 김혜영, “연경좌담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2002.
- 김희성, “축복선언(마 5:3-12)의 형성사적 고찰(I),” 『신약논단』 1 (1995), 44-68.
- _____, “축복선언(마 5:3-12)의 형성사적 고찰(II),” 『신약논단』 2 (1996), 7-41.
- 문옥배, “근대교회음악의 한국화 논의와 시도,” 『음악과 문화』 5 (2001), 123-147.
- 문혁, 『“연경좌담”의 제작배경과 문학적 성격』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
- 양재훈, 『관소리의 신학적 풍경』,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 _____, 『웨슬리가 전한 산상수훈』, 서울: KMC, 2015.
- 오덕호, 『산상설교를 읽읍시다』,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2.
- 왕대일, “우리나라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살펴보십시오,” 『구약논단』 14:3 (2008), 6-8.
- _____, “경전의 재발견 - 성경을 연주하라,” 『기독교사상』 52:9 (2008), 212-227.
- _____, “경학과 역사비평,” 『신학과세계』 72 (2011), 7-32.
- _____, “성서해석학과 그 패러다임의 전환 - 넓이의 해석에서 깊이의 해석으로,” 『신학과세계』 66 (2009), 7-34.
- _____, “성서 번역 새로 보기 - 문예적 번역과 문학 기능 동등성,” 『성경원문연구』

- 」20 (2007), 52-73.
- _____, “번역 속의 주석, 그 가능성과 한계 - 내용 동등성 번역의 경우,” 『성경원문연구』 16 (2005), 62-78.
- 윌트, 티모시, “문학적 기능의 동등성 - 그 몇 경우,” 이환진 역, 『성경원문연구』 15 (2004), 117-153.
- 웬들랜드, 언스트 R., 정제순, 『문학적 기능 등가 번역 I』. 서울: 태학사, 2012.
- 이복규, “개신교가사에 대하여,” 『온지논총』 18 (2008), 225-248.
- 이상현, “유몽천자 소재 영미문학작품과 게일(J. S. Gale)의 국한문체 번역실천 - 개신교 선교사의 근대문체를 향한 기획과 그노정(I),” 『서강인문논총』 42 (2015), 99-154.
- _____, “제국들의 조선학, 정전의 통국가적 구성과 유통,” 『한국근대문학연구』 18 (2008), 67-100.
- 이혜정, “천주가사의 저작배경과 내용의 변화,” 『종교연구』 34 (2004), 391-420.
- 임희국, “성경의 한글번역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님 이름 논쟁,”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신학과 실천』 15 (2014), 89-115.
- 차정식, “구원론 이전의 구원론 - 산상수훈의 경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9 (2007), 47-66.
- 최태영, “기독교 신명고,” 『국어국문학』 124 (1999), 1-20.
- 하성래, “정약전의 십계명가와 이벽의 천주공경가 I,” 『신학전망』 21 (1973), 136-154.
- _____, “정약전의 십계명가와 이벽의 천주공경가 II,” 『신학전망』 23 (1973), 156-170.
- 한규무, “게일(James S. Gale)의 한국 인식과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 - 1898-1910년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4 (1995), 161-176.
- 헤그너, 도날드, 『마태복음(상)』,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 1990.
- Allison, D., *The Sermon on the Mount*, NY: Crossroad, 1999.
- _____, “The Structure of the Sermon on the Mount,” *JBL* 106:3 (1987), 423-445.
- Betz, Hans Dieter., *The Sermon on the Mount: A Commentary on the Sermon*

- on the Mount Including the Sermon on the Plain (Matthew 5:3-7:27 and Luke 6:20-49)*,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 Gale, James S., "A Few Words on Literature," *The Korean Repository Vol. II, January-December, 1895*, Seoul: The Trilingual Press, 1895, 423-425.
- McArthur, Harvey K., *Understanding the Sermon on the Mount*. NY: Harper & Brothers, 1960.
- Underwood, Lillas H.,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1987 reprint series, Seoul: Royal Asiatic Society, 1987.
- Viviano, B., "Beatitudes Found among Dead Sea Scrolls," *Biblical Archeological Review* 18 (1992), 53-55, 66.
- Yang, Jayhoon, "J. Wesley and the Addressee of the Sermon on the Mount in his Standard Sermons 16-28," *KJCS* 60 (2008), 25-42.

<초록>

산상수훈과 한국적 재구현

-개신교 가사 『연경좌담』(1923) 중 “산상보훈가” 연구-

양재훈

(협성대학교 교수)

이 논문은 게일(J.S. Gale)과 이창직이 쓴 149편의 개신교 가사집 『연경좌담』(1923), 이 가운데서 특히 산상수훈 부분을 다룬 “산상보훈가” 9편을 연구한 논문이다. 한국의 초기 개신교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게일과 그의 동역자 이창직은 사복음서가 한국인들에게 가장 쉽고 편안하게 다가오고, 성경 말씀이 한국적 맥락 안에서 그들의 삶과 신앙에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개신교 가사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풀어내었다. 이 논문은 먼저 『연경좌담』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그 내용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산상보훈가” 9편을 살폈다. 이 9개의 가사를 분석함에 있어서 그 구조와 문예적 특징을 분석하고, 이어서 이 가사에 담긴 신학적인 관점을 연구했다. 특히 게일이 1925년에 개인적으로 번역한 『신역 신구약전서』와 본문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산상보훈가”가 어떤 신학적 색채와 해석적 관점을 갖고 있는지 분석했다. 『연경좌담』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시피 한 현실 속에서 이 논문은 후속 연구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의 성서신학이 한국적인 색채를 가지고 한국 교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Sermon on the Mount and Its Representation in the
Korean Context: An Analysis of Korean Protestant
Gasa, “the Sermon on the Mount” in J. Gale and Yi
Chang-Chik’s *The Gospel as Sung*

Prof. Jayhoon Yang
(Hyupsung University)

This article deals with J.S. Gale and Yi Chang-Chik’s Protestant *Gasa* collection, *The Gospel as Sung* (1923), especially 9 pieces of “San-Sang-Bo-Hun-Ga” (The Sermon on the Mount). Gale and Yi, who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persons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Protestant mission, wrote 149 pieces of Protestant *Gasa* in order to help Koreans understand the gospel more easily and be meaningful in their life and faith as the Word of God. This article firstly provides basic information of this collection, and analyses its structure and contents. It also examines the literary and theological aspects of “San-Sang-Bo-Hun-Ga.” It especially compares them with the Sermon on the Mount passages in Shin-Yuck Shin-Gu-Yack-Jeon-Seo (New Korean Bible Translation) which Gale translated into Korean in 1925. This article serves as a stepping stone for further research on *The Gospel as Sung* as well as on many other works of Korean biblical interpretation and its representation. It suggests that Korean biblical studies need to search for various ways to contribute to the Korean Church with its own colour.